

푸락마티즘의 生活觀(上)

美洲 로싼젤스 韓稚振

思想은 活動이다. 生生活動을 엇더케엇더케 하기 爲하여 思考도 하게 되
엇으며 文學과 智識을 學得코저하는 것이다. 이래서 사람의 精神作用의 效
能은 生活上 一個의 機具에 不過한 것이다. 有機體인 四肢百體는 生活環境
時에 調節하는 其間에 그 力의 比例로 變化發達되며 따라서 精神現
狀이 出現된다. 말하자면 精神現像은 그 始初를 感覺에 두엇고 感覺은 生存
鬪爭에서 出現하여가지고 環境의 影響을 입어 차츰 發達하는 中 마침내 今
日사람의 理性에까지 進化向上된 것이다. 이려고 보니 宇宙萬有는 創造的進
化의 進行이며 其進化의 內在의 根本動機는 盲目的인 宇宙力 즉 生活衡動인
것을 吾人은 忘却할수업는 事實이다. 그리고 今日우리사람의 人格은 이 宇
宙進化宴에서 結果한것에 不過하다.

現代一般思想 특히 科學的 哲學的 思想의 特徵은 三種으로 分하여 볼 수있
다. 一 曰 變遷性主義 二 曰 人本主義 三 曰 經驗本位主義이라할 것이다.
이 三 個 思想要素의 主義를 說明하자면 첫째 變遷性主義는 在來 이 宇宙萬
物을 볼 때에 그 根本實在는 固定不變하는 것으로 解釋하였으나 今日에 科
學發達의 影響으로 그러한 定見을 餘地업시 破壞하고 一切現像을 變化의 立
地에서 解說하려는 것이다. 甚至於從來에 잇서 永久無窮完全性을 가진 天神
이라든 것까지 變遷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有限한 實在로 看破하게 된 것이
다. 이 世上은 變動하는 것이 眞理요 實在이라 하게 되었다. 둘째 人本主
義는 一切價値問題에 對하여 主張하는 見地이니 要意인즉 只今 무엇을 評價
하든지 人生을 本位로 삼아가지고 眞을 定하자하며 따라서 人間을 離한 價
値나 眞理는 아모 使用도 업슬 虛僞일 뿐더러 그 存在까지 無하다 斷定하게
된 것이다. 즉 말하면 人生生活을 離한 眞理나 實在는 無用일뿐더러 그러한
것이 存在의 權利를 갖지 못하였다한다. 슌데 經驗本位主義라는 것은 一切
事物에 對한 判斷을 吾人의 經驗의 上에 立하여 着手하자하며 人間經驗 外

의 一切 事는 論議할 價値도 업스며 모다 空論空理 쏘이라 한다. 眞理는 오즉 經驗 속에서만 調査할 수 잇다 明示한 것이다.

오늘날 以上과 如한 思想을 代表하는 人物로 말하면 우리가 익숙히 아는 米國의 『윌리엄 제임스』·佛國의 『벨록손』·獨逸의 『오이켄』□士 等이다. 『오이켄』의 生活主義이나 『벨록손』의 創造的 進化論及直覺哲學이나 『제임스』의 實驗主義 『푸랙마티즘』은 다가티 以上の 三種의 現代思想의 特徵을 表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此 三人 中에는 一人의 哲學思想만이라도 理解하고보면 가튼 二人의 思想 즉 近代 思想情神及 그 內容을 圓滿히 看破하였다 할 수 잇슬 것이다. 余는 여러 가지 經由로 해서 먼저 『제임스』의 『푸랙마티즘』의 生活觀만을 그 要意에 依하여 本論에서 大綱 紹介하려는 同時에 나의 拙한 意見이나마 몇마디 부쳐보려는 것이다.

나는 먼저 이 『푸랙마티즘』의 定義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푸랙마티즘』으로 보는 眞理觀과 本學說의 將來- 이러케 三端으로 分하여 陳하고자한다. 『푸랙마티즘』(實驗主義)은 그 字意와 가티 넷날 理論을 目的삼는 玄奧한 思索哲學과 멀리 썬나서 아조 現代의 特徵인 活動 實驗 實際 利益 滿足等을 論하는 二十世紀의 新 哲學이라 할 수 잇다. 이리므로 實驗的 物質文明의 全盛을 보고 잇는 今日의 米國에서 如此한 哲學을 産하게 됨은 그리 奇怪타 할 수 업는 것이다. 實際주의는 實로 營業哲學이라고해도 無妨할 것이다. 榮利國民인 米人의 適當한 生活哲學이다.

實驗主義는 現實生活을 그대로 實在하고 認定하는 實在主義이다. 生活이 實在요 實在가 곳 生活이라 斷定한다. 이럼으로 이것은 참말 人間的 哲學이다. 英國서는 이 實驗主義를 人間主義라 부른다. 古 希臘의 哲學은 絶對的 永遠不變의 眞理나 實在를 全力探索하기에 目的을 삼앗스나 實驗主義는 그와 正反對로 活動 實際 成就 征服을 그의 研究事項으로 한 것이다. 이 世上에 永久不變이라는 것은 도모지 업다고 認定하면서 活動 征服만이 存在한다. 無限無窮은 人과 相關이업고 다만 有限쏘 우리가 經驗하는 것이요. 그래서 實在도 거기서만 차즐수 잇다한다. 우리 사람이 眞理가튼것도 만들고 世上도 自手로 變化식힌다는 것이다. 단순히 말하면 이는 活動的 征服的 生活의 哲學이다. 이 動的 生活哲學은 『윌리엄 제임스』가 主唱한 것이라 하나 그 思想의 根原은 美人『차-쓰 피에쓰』가 一八七八年에 『우리의 概念을 엇더케 明確히 할가』한 그의 一個 論文으로 비롯하였다 한다. 『제임스』는 그 論文을 읽어어든 몇 가지 條件을 根據하여 組織的으로 自己의 『푸랙마티즘』을 提出한 것이다. 其後 『제임스』의 實驗主義는 『쏘쥬이』의 手를 經하여 器具主義 『인스투르멘티즘』으로 □□되었든 『쥬이』의 主論에 依하면 吾人의 思想

은 生活 上의 一 個 器具에 불과하고 그 器具의 出現은 生存競爭(進化)에서 된 것이라 하였다. 『제임스』의 主義는 다시 英國에 渡하여 人間主義(휴머니즘)가 되었스니 『옥스포드』大學의 『실러』博士가 提唱한 것이다. 이러케 今에 이 實驗主義는 三角形으로 그 勢力을 싸치고 잇는 것이다.